

만남

2016 5월
통권 136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모함당하는 이의 하소연(시편 7,2-9)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35~137 _____	8
기도 소개	하루를 시작하며 _____	11
찬 양	어머니 _____	12
공동체 소식	_____	13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16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19
미사안내	_____	20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여성 존중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이 존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의 중요한 사회적 기여가 높이 평가 받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묵주 기도

가정과 공동체가 복음화와 평화를 위하여 묵주 기도를 바치도록 기도합니다.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싱그러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은총과 축복의 달입니다.

만물이 싱싱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5월은 가정의 달, 어버이의 달, 어린이와 청소년의 달, 스승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성모 마리아님을 기리고 그분의 믿음을 본받는 성모님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내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풍성히 받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것은 싱싱하고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요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철쭉은 처연한 붉은 꽃잎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싱싱하고 푸른 가지들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가지에 앉은 새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당신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5월의 나무와 꽃들이 푸르고 싱싱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신의 삶에 말씀이 꽃피고 은총이 열매 맺습니다.

사랑의 계절 5월,

당신의 삶도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 모함당하는 이의 하소연(시편 7,2-9)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억울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 저희가 나누는 작은 사랑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7, 2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3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 몸 물어 가지도 끌어가지도 말게 하소서.

4 주 저의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5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빈털터리 되게 강탈했다면

6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다 짓밟으며

제 명예가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 7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 8 겨레들이 무리 지어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 위 높은 곳에 앉으소서.
- 9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응수하지 않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의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모함이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모함당하는 이로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상권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인들이 필리스티아인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면서 역사의 무대에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쟁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승리에 열광하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 부르며 다윗을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따라 온다는 속담처럼 다윗은 자신의 공을 시샘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인품을 오늘 읽은 시편 7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함에 직접 응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기름부음 받은 이라는 이유로 그와 맞서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울과는 달리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사울의 뒤를 잇는 정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결백함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도 곧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임을 수행할 때, 주변의 오해로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시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에 휩싸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의 탄원시는 우리가 어찌 처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교리135

준주성법 제 1 권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제5장 성경을 읽음

1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지 문장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쓴 그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고상하고 심오한 서적을 읽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쓴 저자의 권위를 따지지 마라. 그의 문학적 기술이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치 말고, 오로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2 사람은 죽어 사라져도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시편 117,2) 하느님께서 사람은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주 해를 입는다. 그대로 읽어 나가도 좋을 곳을 알아들으려 하고 해석하려 한다. 성경을 읽어 유익해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박하고 성실하게 읽어라. 그리고 남에게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성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성현들이 비유를 들어 해석한 것은 아무 뜻 없이 한 것이 아니니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교리136

제6장 절제하지 않는 사욕을 극복함

1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탐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 교만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은 한순간도 평안히 지낼 수가 없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평화롭게 산다. 자신에 대하여 온전하게 족지 않은 사람은 머지않아 시련을 당하며,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걸려 넘어진다. 마음이 약하여 육신의 노예가 되어 쾌락에 기울어진 사람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어 버리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 쾌락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누가 그를 반대하면 쉽게 분노한다.

2 그러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즉시 양심이 그를 보채어 괴롭힌다.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욕을 따랐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욕을 따랐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다.

제7장 헛된 희망과 교만을 피함

1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 눈에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신뢰하여라. 또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의 좋은 지향을 헤아리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네 지식도 믿지 말고 어떠한 현세의 기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낮추시기 때문이다.

2 네게 재물이 많이 있다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도 말고, 권력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지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너는 네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 몸은 사소한 병으로도 썩고 악취를 풍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일을 훌륭하게 잘한다고, 혹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너한테 있는 타고난 그 좋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3 네가 다른 사람 보다 나은 줄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살이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네가 남만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

다.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아서,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과 결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가 다른 모든 사람 아래에 너를 둔다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겠지만, 너를 한 사람 위에라도 높게 두면 커다란 해를 입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

교리 137

제9장 순명과 복종

1 제멋대로 살지 않고 윗사람에게 순명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장한 일이다. 윗사람 노릇을 하며 사는 것보다 어른에게 순명하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애덕으로 순명하기보다는 억지로 순명하기 때문에 순명을 괴롭게 여기고 이에 대해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한다. 하느님을 위항 자기를 낮추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명하기 전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아라.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순명치 않고는 안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더 낮겠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지만 마침내 스스로 속앓음을 깨닫게 된다.

2 누구나 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기울어진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면 우리는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 누가 그리 지혜로워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네 신념을 과도히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생각을 하여라. 네 의견이 좋다 해도 하느님을 위하여 그 의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3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보다 남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자신의 의견이 좋은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교만과 고집의 표본일 뿐이다.

비안네 신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사람들에 대해
 저의 존재의 경이로움에 대해
 영혼과 육체라는 신비로운 선물에 대해
 제가 누리는 모든 선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그리고 저를 강하게 해 주는 시련들에 대해서도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의 매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두려움과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받는 사랑을 만끽하며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사랑을 나누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저의 탐욕 때문에 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있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강함과 기쁨과 사랑에서 성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진실하고 고귀하고 순수한 것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이 날을 시작하고 마치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외로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62

최현숙

1. 먼 동 이 트 이 듯 나 타 나 신 - 달 과 같 이 아 름 - 답 고 해 주
 2. 은 총 이 가 득 하 신 마 리 아 님 - - 기 - 빠 하 - 소 서 주

와 같 이 빛 나 는 저 여 인 은 저 - 여 인 은 누 구 실 까 내 주
 함 께 계 시 니 복 되 - 도 다 여 인 중 에 복 되 시 도 다

영 혼 이 주 님 을 찬 미 하 여 내 구 세 주 생 - 각 에 기
 님 의 종 이 니 그 대 로 제 게 이 루 - 어 지 - 소 서 그

뽕 이 념 치 네 샘 물 - 처 럼 복 되 다 아 름 다 운 성 모
 응 락 의 말 씀 이 사 람 되 어 당 신 안 에 자 라 시 도 다

향 기 로 운 꽃 잎 에 부 딛 는 햇 살 과 산 들
 초 록 앞 - 새 위 에 내 리 는 햇 빛 물 과 은 세 상

바 람 에 실 려 온 당 신 의 숨 - 결 천 우
 죄 아 파 하 시 는 당 신 의 눈 - 물

주 의 성 모 여 우 리 위 하 여 사 랑 하 는 아 드 님 께 그
 리 위 하 여 사 람 되 신 주 의 사 랑 받 는 어 - 머 니 그

인 내 그 믿 음 그 겸 손 까 지 청 하 여 빌 어 주 읊 소 서 -
 온 유 그 사 랑 그 겸 손 까 지 청 하 여 빌 어 주 읊 소 서 -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보 (St. Phillip)	김경열 이수용	16일	요한 (St. John)	홍경영
4일	카타리나	오경은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최효정 방수정
11일	비발도	김건			
12일	젬마 (St. Gemma)	김(이)정자 방영자			
14일	크리스티안 (St. Christian)	이성원	30일	요안나 (St. Joana)	윤석순
25일	소피아 (St. Sophia)	이신자 이공중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곱 (St. Jacob)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St. Benedicta)	민병진(H)	15일	니콜	김지희(H)
8일	이다	최이다(H)	22일	릿따	김남화(B)
12일	젬마	김선주(H)			

❖ 5월 미사 전례 봉사자 ❖

5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 봉사
1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이정수(토마스) 곽케빈(요셉)	요셉 마리아회
8일	이수홍(필립보) 김순임(안나)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주일학교 복사단	1구역
15일	최한우(바오로) 김혜경(아네스)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공동체 전체
22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허선애(임마누엘라) 윤예진(모니카)	최장용(레오) 곽케빈(요셉)	2구역
29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젬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3구역

❖ 5월 성가번호

5월	입 당	봉 헌	마 침
1일	130	511	244
4일	245	248	276
8일	137(3)	221	141
15일	147	246	493
22일	81	218	241
29일	164	215	249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5월 26일 ♣김 동창(요 셉)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3월 27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17일
계(€)	347.97	217.23	227.25	220.84

❖ 자진헌납금 ❖

2016년 3.21 — 2016년 4.17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김기현, 김형웅, 이수웅, 권지연,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한선지, 이현묵,
이정수, 현영애, 손수희, 이공종,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정정숙,
강신행, 이영희, 이석우, 박귀동, 박종례, 김민수, 민경화, 이종하, 윤예진, 최승진,
김 건, 김경미, 이중지, 이수현, 오옥수.

구좌입금 :

강일남, 최화영, 홍경영, 남궁 춘배, 최성자, 김대현, 김원자, 김수혜, 백정선, 최현봉,
김치수, 김진호, 김동수, 허두욱, 서유미, 허길조, 박케빈, 이성원, 이상봉.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5월 15일(성령강림 대축일)**은 본당의 날입니다.

1) 언제 : 5월 15일(성령 강림 대축일) 주일미사 11시, 10시 30분까지 도착

2) 어디서 : Planten un Blumen in Hamburg

3) 주차장 : Planten Blumen Glacischaussee 2

[참고] 주일이라 양 길가로 주차 가능함. (무료) 만약 주차자리가 없으면 들어가자 바로 오른쪽 “ Eingang C ” 로 들어가 주차 가능함. (하루 종일 4유로) - <3명이 태극기 들고 주차 안내>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준비조 - 설치 및 준비	사전 준비
10:30	도착완료	공동체 별
11:00	주일미사	성령강림대축일미사
13:00	점심식사	정, 백팀 나누기
14:30	친교의 시간	공동체 화합의 시간
18:00	정리 및 환송	뒷정리

4) 식사 : 함부르크 공동체, 본당에서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사 도구와 앉으실 자리, 모자 및 양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3. 견진교리 일정

일 시	내용	비고
4월 24일(주일)	견진성사, 성령의 은사	주일 미사 후 만남성당
	천주존재(신론)	
5월 1일(주일)	삼위일체론	만남성당 15:00
	강생구속(예수 그리스도)	
5월 5일(목요일) 15:00	상선별악(신자들의 신앙생활)	만남성당 15:00
	7 성사 (증거로서의 신앙생활)	
5월 8일(주일)	성체성사(미사해설 포함)	주일 미사 후 만남성당
	새로운 신자의 삶	
5월 16일(월요일)	Marien Dom 10:00 미사	견진성사

❖ 공동체 소식 ❖

4. 성모의 밤 행사는 5월 4일(수요일) 19:00시, 만남 성당 밑 강당입니다.
5. 복음 나누기 기도회는 5월 6일(금요일) 16:30분입니다.
6. 2구역 소공동체는 5월 20일(금요일) 17:30입니다.
7. 5월 16일은 함부르크 교구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육 베로니카, 이 필립보, 심 안나, 문 크리스티나, 박 바오로** 형제, 자매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8. 5월 26일(목요일 19:00)은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함부르크 교구 성체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모국어(母國語)로 복음 낭독 및, 주님의 기도 등이 있으니 신자분들의 신심 깊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는 주교좌 성당 (Marien Dom)입니다.

❖ 지방 공동체 소식 ❖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김순자(젤뚜르다) 자매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고인 김차선(마리아)의 명복을 기도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공 석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6 2491 007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5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성 모 성 월)

2016년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사목협의회 견진교리	
2	월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3	화	성 필립보와 야고보 사도		
4	수		성모의 밤 - 강당 19:00	꾸리아 주관
5	목	어린이날, 입하 한국 103위 순교성인 시성일	견진교리	
6	금		복음 나누기 기도회1	
7	토			브레멘 공동체
8	일	주님 승천 대축일 아버이 날	청년 소공동체 견진교리	
9	월	부활 제7주간 월요일		
10	화			
11	수	입양의 날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2	목			
13	금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님 기념미사	청년 성가 봉헌
14	토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 없음
15	일	성령 강림 대축일 스승의 날	본당의 날	
16	월	연중 제7주간 월요일	함부르크 교구 견진성사 10:00	
17	화			
18	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19	목		연령회	
20	금	소만	2구역 소공동체	
21	토	부부의 날		하노버 공동체
22	일	삼위 일체 대축일		
23	월	연중 제8주간 월요일		
24	화			
25	수			
26	목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함부르크 교구 성체성혈 미사 19:00	성체이동
27	금			
28	토			
29	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청소년 주일)		
30	월	연중 제9주간 월요일		
31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viannae@hanmail.net
 본당신부님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